

《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》 펴낸 박노자 교수

“다양한 동아시아 개인의 얼굴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”

글_정윤희 기자 | 사진_박신우 기자

“우 리에게 물질적으로 ‘동아시아 시대’ 는 이미 찾아왔습니다. 결혼하는 8쌍 중의 하나 는 중국이나 베트남, 필리핀 등 동아시아 내지 인접 지역 출신과 하고, 무역 차원에 서도 대미 무역보다 중화권과의 무역 비중은 약 두 배 높아요.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우리 에게 동아시아가 아닌 나머지 아시아(중동 등)는 아예 미지의 땅이고, 동아시아도 거의 알 과 모름의 사이에 걸려 있지요. 우리는 예컨대 최근의 일본의 통속화된 문학(무라카미 하 루키 등)은 잘 알아도 일본의 근현대사의 사상적 흐름에 매우 어둡고, 중국의 고전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도 현재의 중국 문학을 거의 모르는 상태입니다.”

박노자 교수가 《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》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동아시아에 대한 단 편적인 지식의 체계성이 결여됨을 회복하기 위해서이다. 2006년 8월부터 1년간 연구년을 맞은 그는 한국과 일본에서 자료 수집 등 연구 작업에 매달려 있다. 올해 3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성균관대에서 방문학자로서 자료 수집 작업에 종사했던 그는 실제 3개월밖에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터뷰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였다. “외부 강연 요청도 꽤 있고 연구와 대중화 작업 병행이 참 어렵다는 걸 느낀다” 면서 최근 ‘한국의 초기 사회 진화론’ 관련으로 영문 저서를 써가는 중이라고 한다.

박 교수는 “우리가 동아시아의 민중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” 고 지적한다. 그래서 동아시아 민중의 ‘밑으로부터의 연대’ 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이 책을 계획했다. 박 교수는 《우리가 몰랐던 동아시아》에서 “억압성이 강한 기존의 체제에 대한 전복적 의식 과 행동의 총체를 말하는 것” 이라는 의미를 지닌 ‘반란성’ 이라는 용어를 썼다.

“물론 계급적 투쟁을 포함하지만 꼭 가장 ‘전형적인’ 계급투쟁, 예컨대 노동자의 파업 과 농민의 반란 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. 억압적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집단적 반발, 예를 들면 1920년대 조선의 유명한 학교 ‘스트라이크’ (동맹 휴학, 학생들의 ‘동맹 파업’) 나 변영만 선생처럼 식민지적 근대성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억압적인 현 실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동서양 문화의 여러 요소들을 조합해보는 ‘괴짜적’ 개인들의 노 력도 ‘반란성’ 을 보유하지요. 함석헌 선생의 말씀으로는 생명이 바로 ‘대답’ 인데, 이를 제가 ‘반란성’ 이라고 이름 했어요.”

과부는 개가할 수 없다는 성리학적 명분론도 동아시아의 과거지만 신랄 몇 명을 동 시에 거느렸던 19세기 함경도의 기생들이나, 장사를 대단히 잘 했던 그 시대의 제주도 여 성들도 분명히 동아시아인들이었다. 그가 말하는 대로 동아시아에서는 ‘위에서’ 강요되 는 지배 이데올로기도 존재하지만 이데올로기와 몸으로 부딪치는 다양한 개인들이 존재 한다. “주회를 거의 종교적으로 숭배한 송시열도 동아시아인이지만, 어릴 적의 마음만이 진실이라고 믿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숭배하기를 거부한 탁월한 개인주의자 이탁오 선생도, 이탁오를 좋아했던 연암 박지원도 동아시아의 얼굴입니다. 동아시아가 얼마나 다양한지 기억했으면 합니다.” ■■

